

綜合病院 出生兒의 性比에 關連된 要因

池 河 龍·朴 宰 用

(慶北 大學校 保健大學院)

〈目 次〉	
I. 緒 論	IV. 考 察
II. 對象 및 方法	V. 要約 및 結論
III. 成 績	

I. 緒 論

性比(sex ratio)는 男女 人口의 相對的 크기를 나타내는 指數로서 보통 女子 100명에 대한 男子의 數로서 표시된다. 性比는 1次性比, 2次性比, 3次性比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受精段階에서의 性比인 1次性比는 160정도로 나타나고, 出生時의 性比인 2次性比는 102에서 110 혹은 그 이상이 된다고 한다.^{1,2)} 1次性比보다 2次性比가 크게 낮은 이유로는 男胎兒의 損耗率이 女胎兒보다 높은데 기인한다고 한다. 2次性比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으로는 父母의 年齡, 出產順位, 居住地域, 社會經濟의 特性, 產母의 妊娠歷, 家系의 性構造, 男兒選好度 등을 지적하고 있다.^{2,3)} 出生性比는 時間的·空間的으로 달라지고 있는데, 이는 性比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要因들이 복합적이며, 요인 상호간에 交互作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性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傳統的 價値觀에 기인한 男兒選好思想이라 하겠다.⁴⁾

우리나라 男兒選好思想은 우리들 社會規範 속에서 생성된 전통적인 價値觀으로서 都市地域 婦人보다 農村地域 婦人들의 男兒選好傾向이 더 강하며,^{5,6)} 男子가 女子보다 더 아들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⁷⁾ 또한 少子女觀이 형성됨에 따라 男兒選好思想이 教育정도나 거주지역 등에 관

계없이 低年齡層에 강하게 일고 있다.⁸⁾ 이러한 男兒選好思想은 出生性比에 영향을 미쳐 男兒의 出生比率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심각한 社會問題로 제기될 展望이다. 1975년도 우리나라 0歲 人口의 性比가 108.1이었으나 1985년에는 110.4로 증가되었고,^{8,9)} 2000년에는 結婚適齡期 男性이 女性보다 17.3% 정도 부족하여 심각한 新婦饑饉時代가 도래한다고 한다.¹⁰⁾ 傳統性比가 깨어지고 계속해서 110이 넘는 상태가 유지되면 一夫一妻의 結婚制度가 깨어지고 性犯罪가 늘어나며, 同性戀愛, 獨身主義 등이 보편화 되는 등 社會問題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¹¹⁾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에서 出生性比가 높게 變化되고 있는 것은 自然的인 현상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胎兒性感別技術의 발전 및 人工妊娠中 絶手術의 보편화 등의 영향과 男兒選好思想에 부합된 非倫理的인 人工的 醫學技術操作 들에 의한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¹¹⁾

따라서 本 研究는 大邱市內 綜合病院에서 出生한 出生兒의 性比를 파악하여 이 性比가 어떤 要因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지 分析함으로써 앞으로 人口政策方向을 설정하는데 다소나마 기여코자 하는 目的으로 시도되었다.

II. 對象 및 方法

大邱直轄市の5개 綜合病院에서 1982년 부터 1986년 까지 5년 동안 分娩한 産母들을 대상으로 分娩台帳에서 연도별, 병원별 出生兒 性비를 일차적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중 1個 綜合病院을 선정하여 1984년 부터 1987년 까지 4年間, 비교적 分娩率이 높은 2月과 3月에 분만한 産母 1,286명의 醫務記錄을 研究者가 직접 열람하여 産母의 연령, 학력, 종교, 의료보장형태, 남편의 직업, 生存子女

數, 出生아의 性, 雙胎兒 與否, 출산순위 및 산전진찰시에 超音波檢査를 받은 기록 有無 등을 조사하였다. 對象産母의 年度別 推移 및 出生兒數는 다음과 같다.

産母 1,286명이 4년간 출산한 出生兒數는 1,316명이며, 이중 雙胎兒가 30쌍인 60명으로 쌍태아 分娩率은 2.3%였다. 出生兒는 男兒 691명, 女兒 625명이었다.

Year	No. of delivery	No. of live births							Total
		Single		Twin		Total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1984	273	142	124	11	3	153	127	280	
1985	333	184	145	2	6	186	151	337	
1986	343	161	177	6	4	167	181	348	
1987	337	173	150	12	16	185	166	351	
Total	1,286	660	596	31	29	691	625	1,316	

III. 成 績

1. 大邱 綜合病院에서의 出生兒 性比

大邱市内 5個 綜合病院에서 5년간 분만한 總出生兒의 性비는 114.5이며, 病院別로는 최저 105.1에서 최고 116.1까지의 차이를 보였다. 年度別로는 1985년도가 123.4로 가장 높았고, 1986년 119.2, 1984년 113.9, 1982년 110.3, 1983년 103.9의 順으로 나타났다. 要因分析對象病院으로 선정된 B病院의 경우 5년간 116.1의 性비를 보였으며, 1985년에 130.5로 가장 높았고, 1984년 122.8, 1986년 118.9, 1983년 104.8의 順이었다(Table 1).

2. 對象病院 出生産母의 一般的 特性

對象産母의 年齡別 出生兒分布를 보면 25~29세가 62.7%로 가장 많았고, 24세 이하가 19.2%, 30~34세가 14.3%, 35세 이상이 3.8%였다. 産母의 學歷別 出生兒比率은 고등학교 졸업자 42.6%, 대학 졸업자 24.8%, 中학교 졸업자 23.5%, 國民학교 졸업 이하 9.1%였다. 그리고 出生아의 産母 중 宗教가 없는 産母가 32.5%였으며, 佛敎 25.0%, 改新敎 21.9%, 天主教 5.3%였다. 産母의 男便職業은 事務職이 53.9%로 가장 많았고, 生産職 13.8%, 관

매·서비스職이 13.6%, 專門·管理職이 11.1%, 農·水産職이 3.5%였다(Table 2).

3. 産母의 特性別 出生兒 性比

産母의 年齡別 出生兒性비는 35세 이상 産母가 400.0으로 가장 높았고, 25~29세는 109.9, 30~34세는 108.9였으나, 24세 이하는 91.7로 오히려 女兒가 男兒보다 많았다. 同一年齡群에서도 年度別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4년간 出生兒의 性別 構成은 産母의 年齡에 따라 통계적으로 有意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産母의 學歷別 出生兒性비는 高등학교 졸업군이 119.1로 가장 높았고, 大學 졸업군은 111.7, 中학교 졸업군은 104.6, 國民학교 졸업 이하군은 87.5로 나타났으나, 統計的으로 有意한 차이는 아니었다(Table 4).

産母의 宗教別로는 개신교가 121.5로 가장 높았고, 불교 115.0, 기타 113.8, 천주교 112.1, 無敎 99.1로서 統計的으로 有意한 차이가 아니었다(Table 5).

産母의 男便職業別로는 農·水産職이 135.0으로 가장 높았고, 관매·서비스職 132.5, 專門管理職 123.9, 事務職 108.5, 無職 96.0, 生産職 89.6의 順이었다. 그러나 이 또한 統計的으로 有意한 차이는

Table 1. Birth Sex Ratio of Hospital Deliveries in Taegu city, 1982-86

Hospital	1982		1983		1984		1985		1986		Total	
	M	F	M	F	M	F	M	F	M	F	M	F
	(S/R)		(S/R)		(S/R)		(S/R)		(S/R)		(S/R)	
A	205	221	180	207	184	149	203	184	226	189	999	950
	(92.8)		(86.9)		(123.4)		(110.3)		(119.6)		(105.1)	
B	1,175	1,099	1,008	962	952	775	1,156	886	1,220	1,026	5,511	4,748
	(106.9)		(104.8)		(122.8)		(130.5)		(118.9)		(116.1)	
C	-	-	218	197	427	392	568	446	682	609	1,895	1,644
			(110.7)		(108.9)		(127.4)		(112.0)		(115.3)	
D	2,162	1,874	2,071	2,052	2,257	1,996	2,540	2,133	2,947	2,454	11,977	10,509
	(115.4)		(100.9)		(113.1)		(119.1)		(120.0)		(114.0)	
E	794	738	992	884	945	870	1,114	873	1,145	940	4,990	4,305
	(107.6)		(112.2)		(108.6)		(127.6)		(121.8)		(116.0)	
Total	4,336	3,932	4,469	4,302	4,765	4,182	5,581	4,522	6,220	5,218	25,371	22,156
	(110.3)		(103.9)		(113.9)		(123.4)		(119.2)		(114.5)	

Note : M : Male, F : Female, S/R : Sex ratio

Table 2. Distribution of Number of Live Births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Mothers, 1984-87

Classification	Calendar year				
	1984	1985	1986	1987	Total
Age(yrs.)					
Below 24	31(11.1)	45(13.4)	92(26.4)	85(24.2)	253(19.2)
25 - 29	188(67.1)	219(64.9)	202(58.1)	216(61.5)	825(62.7)
30 - 34	40(14.3)	59(17.5)	48(13.8)	41(11.7)	188(14.3)
Above 35	21(7.5)	14(4.2)	6(1.7)	9(2.6)	50(3.8)
Education					
Primary school	41(14.7)	38(11.3)	26(7.5)	15(4.3)	120(9.1)
Middle school	76(27.1)	67(19.9)	88(25.3)	78(22.2)	309(23.5)
High school	116(41.4)	150(44.5)	145(41.7)	150(42.7)	561(42.6)
College or above	47(16.8)	82(24.3)	89(25.6)	108(30.8)	326(24.8)
Religion					
Buddist	48(17.1)	90(26.7)	77(22.1)	114(32.5)	329(25.0)
Christ	56(20.0)	68(20.2)	82(23.6)	82(23.4)	288(21.9)
Catholic	11(3.9)	18(5.3)	13(3.7)	28(8.0)	70(5.3)
Others	92(32.9)	62(18.4)	22(6.3)	25(7.1)	201(15.3)
None	73(26.1)	99(29.4)	154(44.3)	102(29.0)	428(32.5)
Husband's occupation					
Managerial	27(9.6)	29(8.6)	46(13.2)	48(13.7)	150(11.4)
Clerical	180(64.3)	200(59.4)	163(46.8)	166(47.3)	709(53.9)
Service	24(8.6)	61(18.1)	43(12.4)	51(14.5)	179(13.6)
Agricultural	12(4.3)	10(3.0)	13(3.7)	12(3.4)	47(3.6)
Producing	24(8.6)	20(5.9)	70(20.1)	68(19.4)	182(13.8)
Unknown	13(4.6)	17(5.0)	13(3.7)	6(1.7)	49(3.7)
Total	280(100.0)	337(100.0)	348(100.0)	351(100.0)	1,316(100.0)

Table 3. Sex Ratio at Births by Age of Mothers

Age(yrs.)	1984	1985	1986	1987	Total
Below 24	138.5	104.5	80.4	84.8	91.7
25~29	116.1	110.6	88.8	127.4	109.9
30~34	66.7	168.2	118.2	86.4	108.9
Above 35	600.0	366.7	500.0	200.0	400.0
Total	120.4**	123.2	92.2	111.4	110.6**

**P<0.01

Table 4. Sex Ratio at Births by Educational Level of Mothers

Educational level	1984	1985	1986	1987	Total
Primary school	64.0	100.0	116.7	87.5	87.5
Middle school	111.1	139.3	91.3	90.2	104.6
High school	146.8	123.9	90.8	127.3	119.1
College or above	147.3	121.6	89.4	111.8	111.7
Total	120.4	123.2	92.2	111.4	110.6

Table 5. Sex Ratio at Births by Religion of Mothers

Religion	1984	1985	1986	1987	Total
Buddist	182.4	104.5	97.4	115.1	115.0
Christ	166.7	172.0	78.3	115.8	121.5
Catholic	120.0	125.0	62.5	133.3	112.1
Others	100.0	148.0	100.0	108.3	113.8
None	92.1	102.0	100.0	100.0	99.1
Total	120.4	123.2	92.2	111.4	110.6

Table 6. Sex Ratio at Births by Husband's Occupation

Occupation	1984	1985	1986	1987	Total
Managerial	350.0	190.0	84.0	84.6	123.9
Clerical	100.0	108.3	91.8	140.6	108.5
Service	200.0	154.1	104.8	112.5	132.5
Agricultural	140.0	66.7	116.7	300.0	135.0
Producing	118.2	100.0	100.0	70.0	89.6
Unknown	85.7	240.0	44.4	50.0	96.0
Total	120.4	123.2	92.2	111.4	110.6

아니었다(Table 6).

4. 出生兒의 出生順位別 性比

출생아의 出生順位가 세번째 이상인 出生兒 경우의 性비가 309.5로 가장 높았고, 둘째가 107.5였

고, 첫째가 101.7로 가장 낮아 統計的으로 有意한 차이를 보였다. 出生順位가 세번째 이상인 出生兒는 總출생아의 6.5%에 불과하였으나 性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出生兒의 62.1%를 차지하는 첫째아의 性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7).

Table 7. Sex Ratio at Births by Parity

Parity	1984		1985		1986		1987		Total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Sex ratio)		(Sex ratio)		(Sex ratio)		(Sex ratio)		(Sex ratio)	
First	85	61	110	106	101	124	116	114	412	405
	(139.3)		(103.8)		(81.5)		(101.8)		(101.7)	
Second	49	59	56	43	53	50	56	47	214	199
	(83.1)		(130.2)		(106.0)		(119.1)		(107.5)	
Third or more	19	7	20	2	13	7	13	5	65	21
	(271.4)		(1,000.0)		(185.7)		(260.0)		(309.5)	
Total	153	127	186	151	167	181	185	166	691	625
	(120.4*)		(123.2**)		(92.2)		(111.4)		(110.6**)	

*P<0.05, **P<0.01

Table 8. Sex Ratio at Births by Mother's Age and Parity

Parity	below 24			25 - 29			30 above		
	Male	Female	sex ratio	Male	Female	sex ratio	Male	Female	sex ratio
First	105	119	88.2	274	252	108.7	33	34	97.0
Second	16	11	145.4	140	134	104.5	58	53	109.4
Third or more	-	1	-	18	7	257.1	47	13	361.5
Total	121	131	92.4	432	393	109.9	138	100	138.0**

**P<0.01

産母의 年齡 및 出生兒의 出産順位別 性比는 24세 이하의 産母에게서는 둘째아의 性比가 145.4로 높은데 비해 첫째아의 性比는 88.2로 女兒가 많았다. 25~29세의 産母에게서는 셋째아 이상의 性比가 257.1인데 反해 첫째아는 108.7, 둘째아는 104.5였다. 30세 이상의 産母群에서는 셋째아 이상의 性比가 361.5로 높았고, 둘째아는 109.4, 첫째아는 97.0이었다(Table 8).

5. 産母의 生存子女에 따른 性比

産母의 生存子女가 女兒만 둘 이상인 경우 出生性比가 330.7로 가장 높았고, 男女 각 1명 이상인 경우는 260.0으로 그 다음을, 女兒만 1명 둔 産母는 128.8, 生存子女가 없는 경우는 100.5였다. 그러나 男兒만 1명 이상 둔 産母는 95.7로 오히려 女兒 出生數가 많았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9).

産母의 年齡에 따라 生存子女構成別 性比를 비

교해 보면, 30세 이상 産母가 女兒만 2명 이상이 있는 경우의 性比가 450.0으로 가장 높았으며, 30세 이상 産母라도 男兒만 1명 이상 있는 경우는 80.0으로 오히려 女兒의 出生이 많았다. 25~29세 産母에서는 女兒만 2명 이상 둔 경우의 出生兒 性比가 175.0인데 反해 男兒만 1명 이상 둔 경우는 98.5였다. 子女가 없는 産母중에서는 30세 이상 산모의 出生兒 性比가 111.7이었고, 25~29세는 106.3, 24세 이하는 85.1로서 年齡이 많을수록 男兒 出生率이 높았다(Table 10).

6. 産母의 超音波檢査有無에 따른 性比

産母의 53.0%가 超音波檢査를 받은 기록이 있었는데, 年度別로는 1984년에 27.1%, 1985년에 58.2%, 1986년 47.4%, 1987년에 74.4%로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超音波檢査를 받은 기록이 있는 産母의 出生兒 性比가 135.8로서 기록이 없는 産母의 87.8보다 높

Table 9. Sex Ratio at Births Living Children (composition of sex), 1984-87

Living Children	1984			1985			1986			1987			Total		
	M	F	S/R	M	F	S/R	M	F	S/R	M	F	S/R	M	F	S/R
M:0, F:0	87	66	131.8	113	104	108.7	101	125	80.8	111	115	96.5	412	410	100.5
M:0, F:1	28	25	112.0	34	24	141.7	32	31	103.2	40	24	166.7	134	104	128.8
M:0>, F:2	12	4	300.0	13	2	650.0	10	4	250.0	8	3	266.7	43	13	330.7
>M:1, F:0	22	31	71.0	21	18	116.7	22	20	110.0	24	24	100.0	89	93	95.7
>M:1, >F:1	4	1	400.0	5	3	166.7	2	1	200.0	2	0		13	5	260.0
Total	153	127	120.4	186	151	123.2	167	181	92.2	185	166	111.4	691	625	110.6**

**P<0.01

M:Male, F:Female, S/R:Sex ratio

Table 10. Sex Ratio at Births by Mother's Age and Living Children

Living Children	below 24			25 - 29			30 above		
	M	F	S/R	M	F	S/R	M	F	S/R
M:0, F:0	103	121	85.1	271	255	106.3	38	34	111.7
M:0, F:1	12	4	300.0	80	66	121.2	42	34	123.5
M:0, >F:2	0	1	-	7	4	175.0	36	8	450.0
>M:1, F:0	6	5	120.0	67	68	98.5	16	20	80.0
>M:1, F:0	0	1	-	7	0	-	6	4	150.0
Total	121	131	92.4	432	393	109.9	138	100	138.0**

**P<0.01

M:Male, F:Female, S/R:Sex ratio

Table 11. Sex Ratio at Births by Checking on Ultrasonogram

Ultrasonogram	1984			1985			1986			1987			Total		
	M	F	S/R	M	F	S/R	M	F	S/R	M	F	S/R	M	F	S/R
No record	110	94	117.0	64	77	83.1	73	110	66.4	42	48	87.5	289	329	87.8
(%)		(72.9)			(41.8)			(52.6)			(25.6)			(49.7)	
Recorded	43	33	130.3	122	74	164.9	94	71	132.4	143	118	121.2	402	296	135.8
(%)		(27.1)			(58.2)			(47.4)			(74.4)			(50.3)	
Total	153	127	120.4	186	151	123.2**	167	181	92.2**	185	166	111.4	691	625	110.6**
(%)		(100.0)			(100.0)			(100.0)			(100.0)			(100.0)	

**P<0.01

M:Male, F:Female, S/R:Sex ratio

있는데, 이에 따른 出生兒 性別構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有意하였다(Table 11).

産母의 産前診療時에 超音波檢査를 받은 기록의 有無에 따라 산모의 연령, 학력, 종교, 생존자녀 수와 출생아의 출산 순위별로 구분하여 出生兒의 性比를 비교해 보면, 超音波檢査 記錄이 있는 경

우의 出生兒 性比가 記錄이 없는 경우보다 모두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産母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는 75.0과 109.3으로 反對現象을 보였다. 특히, 35세 이상 산모의 경우 超音波檢査 記錄이 있는 경우가 전체 출생아의 66.0%였으며, 超音波檢査記錄이 있는 경우는 450.0, 記錄

Table 12. Sex Ratio at Births by Mother'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Checking on Ultrasonogram

Classification	No record(A)			Recorded(B)			$\frac{B}{A+B}$ (%)
	M	F	S / R	M	F	S / R	
Age(yrs.)							
Below 24	70	64	109.3	51	68	75.0	47.0
25-29	179	218	82.1	253	175	144.6	51.9
30-34	27	43	62.8	71	47	151.0	62.8
Above 35	13	4	325.0	27	6	1450.0	66.0
X ²		9.971*			19.235**		
Education							
Primary school	29	42	69.0	27	22	122.7	40.8
Middle school	76	98	77.6	82	53	154.7	43.7
High school	127	121	104.9	178	135	131.9	55.8
College or above	57	68	83.8	115	86	133.7	61.7
X ²		3.702			0.751		
Religion							
Buddist	67	64	104.7	109	89	122.5	60.2
Christ	67	65	103.0	91	65	140.0	54.2
Catholic	9	14	64.3	28	19	147.4	67.1
Others	53	55	96.4	54	39	138.5	46.3
None	93	131	71.0	120	84	142.9	47.7
X ²		5.102			0.770		
Parity							
First	191	206	92.7	221	199	111.0	51.4
Second	86	114	75.4	128	85	150.5	51.6
Third or more	12	9	133.3	53	12	441.6	75.6
X ²		2.336			20.060**		
Living children							
M=0, F=0	190	210	90.5	222	200	111.0	51.3
M=0, F=1	51	58	87.9	83	46	180.4	54.2
M=0, >F=2	5	6	83.3	38	7	542.9	80.4
>M=1, F=0	38	54	70.4	51	39	130.8	49.5
>M=1, >F=1	5	1	500.0	8	4	200.0	66.7
Total	289	329	87.8	402	296	135.8	53.0
X ²		0.423			20.422**		

** P<0.01

M: Male, F: Female, S / R: Sex ratio

이 없는 경우는 325.0으로 높은 性比를 보였다. 그리고 出産順位가 세째 이상인 경우는 超音波検査率이 75.6%로 매우 높을 뿐 아니라 出生兒性比도 초음파검사를 한 경우가 하지 않은 경우보다 3.3배 정도 높았다. 또한 女兒만 2명 이상 둔 産母

는 80.4%가 초음파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으며, 이들의 出生兒 性比가 542.9로서 검사기록이 없는 경우의 83.3보다는 6.5배 정도 높게 나타난 것은 특기할 事項이다(Table 12).

IV. 考 察

出生性比, 즉 2次性比는 社會에 따라 보통 102에서 110까지의 차이를 보이는데¹⁾, 大邱市內 5개 종합병원의 5년간 出生兒의 性比는 114.5로서 이보다 높았으며, 分析對象病院의 4년간 2·3월 出生兒의 性比도 110.6으로 이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病院出生兒의 性比가 일반적인 出生性比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서울市內 7개 병원의 1983~85년간 總出生兒의 性比는 111.3이었고²⁾, 釜山市內 1개 병원의 1977~1986년간 總出生兒의 性比는 109.9로서¹²⁾ 本 成績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본 성적은 大邱市內의 1985년도 0歲 人口 性比인 123.2⁹⁾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1984~87년간 총출생 性比는 産母의 教育水準, 宗教, 男便의 職業 등과는 관련성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産母의 年齡, 出産順位 및 生存子女의 數와 性構成 등이 出生性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5세 이상 産母는 전체 산모의 3.8%에 불과하였으나 이들의 出生性比는 400.0으로 24세 이하의 91.7보다 4.4배가 높았고, 出産順位가 세번째 이상인 出生兒 性比는 309.5로서 첫째아의 101.7보다 3.0배 높았다. 그리고 生存子女로 女兒만 2명 이상 둔 産母의 出生性比는 330.7이었는데 비해 男兒만 1명 이상 둔 산모는 오히려 女兒의 出生이 많아 95.7의 性比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男兒選好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 要因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胎兒 性鑑別을 위한 超音波檢査 利用與否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人工妊娠中絶手術率에 영향을 미쳐 出生性比 變化要因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즉, 女兒만 2명 이상 둔 産母는 80.4%가 초음파검사를 한 기록이 있었고, 이들의 出生性比는 542.9였으나 男兒만 1명 이상 둔 산모는 49.5%가 초음파검사를 하였으나, 이들의 出生性比는 130.8로서 이를 잘 反映하고 있다고 하겠다.

超音波檢査를 받은 기록이 있는 産母는 全體産母의 53.0%로 病院分娩産母의 折半 이상이 産前診察時 超音波檢査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男兒選

好의 경향이 심하다는 것을 端的으로 나타내고 있고, 醫療供給者들의 超音波檢査의 濫用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하겠다. 특히 超音波檢査率은 30세 이상의 産母와 女兒만 2명 이상 있는 경우, 그리고 세째아 이상 出産인 경우에 높았으며, 이 경우의 出生兒性比가 40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男兒를 갖고 싶어하는 욕구를 잘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것은 우리나라 婦人의 60.3%는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한 子女만 둘 경우에는 아들이어야 한다는 婦人이 60.1%인데 비해 딸이 있어야 한다는 부인은 8.9%에 불과한 男兒選好의 경향¹³⁾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겠다.

비록 政府에서 1977년에 家族法 改正, 1982년에 女性就業禁止職種緩和 및 1983년부터 出嫁女性 公務員의 家族手當支給 制度化 등^{16,17)}의 女性地位 向上과 男女平等 구현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男兒選好思想이 國民意識속에 뿌리깊이 남아있다는 것이 本 調査 研究에서 잘 反映되고 있다.

子女觀에 대한 態度調査나 性構成에 대한 影響 調査^{13~15)}에서는 男兒選好는 年齡이 많아질수록, 學歷이 낮을수록, 結婚前 就業經驗이 전혀 없는 집단에서, 그리고 農村地域에서 더 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본 조사에서는 年齡이 많을수록 超音波檢査率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와 부합되거나 學歷이 높을수록 超音波檢査率이 높게 나타나는 점은 態度와 實踐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결국 超音波檢査 行爲가 이러한 男兒選好의 態度를 실제로 충족시키는 手段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出生性比가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國民意識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男兒選好를 불식하는 종합적인 社會 制度의 改善과 아울러 胎兒의 性鑑別만을 위한 超音波檢査利用을 억제 혹은 통제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의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V. 要約 및 結論

出生兒 性比에 관련된 要因을 분석하기 위하여 大邱市內 5개 綜合病院에서 1982~1986년간 출생한 新生兒의 性比를 年度別로 비교하고, 이를 1個

綜合病院을 선정하여 1984~1987년 기간중 매년 2월과 3월에 出生한 1,316명을 대상으로 醫務記錄을 조사하였다.

大邱市內 5개 綜合病院에서 5년간에 出生한 新生兒의 性比는 114.5였으며, 1985년도가 123.4로 가장 높았다.

出生性比는 産母의 學歷, 宗教, 男便의 職業 등에 따라서는 統計的으로 有意한 차이가 없었으나, 産母의 年齡, 出産順位, 生存子女의 數 및 性構成에 따라서는 有意한 차이를 보였다. 즉, 産母의 年齡이 35세 이상인 경우의 出生兒 性比는 400.0, 出産順位가 세째아 이상인 경우는 309.5, 生存子女 중 女兒만 2명 이상 둔 경우는 330.7로 현저히 높은 性比를 보였다.

産前診療時에 超音波檢査를 받은 記錄이 없는 경우의 出生兒性比는 87.8인데 비해 記錄이 있는 경우는 135.8로 有意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女兒만 2명 이상 둔 産母의 80.4%가 超音波檢査를 한 記錄이 있으며, 이들의 出生兒 性比는 542.9로 현저히 높았고, 세째아 이상을 출산한 産母는 75.6%가 超音波檢査를 하였고, 이들의 出生兒 性比는 441.6이었다.

出生兒 性比는 男兒選好와 관련되어 超音波檢査에 의한 胎兒性鑑別 때문에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胎兒性鑑別을 목적으로 한 檢査行爲를 억제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를 마련함과 동시에 男兒選好를 助長하는 社會慣習과 각종 社會制度가 전면적으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1) 權彝赫·金應翊, 「保健人口學總論」, 서울大學校 人口醫學研究所, 1984, pp. 24~25
- 2) 申星澈, “우리나라 出生兒 性比에 關한 研究”, 「韓國保健統計學會誌」, 12(1): 30~40, 1987
- 3) 張昌谷, 「第2次 性比에 미치는 人口學的 要因에 關한 研究」,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2
- 4) 孔世勳·朴仁和·權憲琬, 「韓國家族計劃事業」, 1961~1980,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3, pp. 291~292
- 5) 李興卓, “韓國의 人口現況과 展望”, 「韓國의 人口問題와 政策方向」,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1, pp. 54~61
- 6) 朴贊武·趙南勳, “人口增加抑制政策의 現況과 對策”, 「韓國의 人口問題와 政策方向」,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3, p. 365
- 7) 白明子, “一部都市住民의 子女性別에 대한 關心度 調査”, 「公衆保健雜誌」, 7(1): 503~505, 1970
- 8)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1975, 總人口 및 住宅調查報告」, 第一卷, 12-1, 1977, p. 22
- 9)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1985, 人口 및 住宅센서스報告」, 第一卷, 1987, p. 32~44
- 10) 韓國人口保健研究院, 「2000年을 向한 國家長期發展構想-人口部門」, 1983, p. 289
- 11) 孟光鎬, “願하지 않는 妊娠”, 「新東亞」, 110~112, 1986. 4
- 12) 申鳳仙, 「出生時 體重變化의 樣相과 産母의 年齡 및 出産順位와의 關係」, 慶北大學校 保健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7. 8
- 13) 韓國人口保健研究院,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 1985, pp. 45-67
- 14) 咸喜順·高甲錫, “子女의 性構成이 出産調節行爲에 미치는 影響分析”, 「人口保健論集」, 1(1): 40~57, 1981
- 15) 朴在彬·趙南勳, “性選好로 인한 過剩出産數의 推定”, 「人口保健論集」, 4(1): 3~19, 1984
- 16) 梁在讓, “우리나라 人口政策의 綜合分析”, 「韓國人口學會誌」, 9(1): 1~13, 1986
- 17) 韓國人口保健研究院, 「2000年을 向한 國家長期發展構想-人口 및 保健醫療部門」, 1985, p. 110

Factors Affecting the Sex Ratio at Births in Hospital of Taegu City

Ha Ryong Jhi, Jae Yong Park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aegu,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factors affecting birth sex ratio which had revealed alarmingly higher in recent year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get hold of the basic data such as the sex ratio of live births which had been delivered at 5 general hospitals in Taegu from 1982 to 1986. And author chose Dongsan Medical Center from those 5 hospitals for further detailed study, and reviewed 1,286 medical records of mothers who had birth in each February and March from 1984 to 1987. Of these 1,286 deliveries, 30 cases were twin deliveries, which added the total children numbers to 1,316.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average of birth sex ratio(114.5) for 5 years at five general hospitals in Taegu was slightly higher than the traditional birth sex ratio(102-107) and the highest was 123.4 in 1985.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birth sex ratio by mother's educational level, her religion nor father's occupation.

The birth sex ratio of the cases whose mother was above 35 years old was significantly high(400.0), that of the cases who were born to the mothers who had more than 3rd parity was significantly high(309.5), and that of the cases whose mother had more than two daughters and no son was also significantly high(330.7).

The birth sex ratio of the cases who did not have ultrasonogram on their prenatal visits was 87.8. In contrast to this, that of the cases who had ultrasonogram was significantly higher(135.5).

Of the mothers who have more than two daughters and no son, 80.4%(45 cases) had ultrasonogram and their newborn's birth sex ratio was significantly high(542.9). Of the cases who were born to more than 3rd parity mothers, 75.6%(65 cases) of their mothers had ultrasonogram and their sex ratio was significantly high(441.6). It was revealed by this study that the birth sex ratio is changed to significantly high due to sex confirmation of the fetus by ultrasonogram.

Thus it is recommended that the value related to having equality of sexes must be ingrained by changing the various social systems and value systems which is now aggravating the son preference and should provide controlling system which can prohibit the ultrasonogram for sex confirmation only.